

인터뷰 YMCA 창립준비위원장 송영섭

사회교육으로 지역사회 指導者 배출

재정적 자립능력과 민주적 운영의 틀 갖추면 창립

포천YMCA가 창립 발기인대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창립준비에 들어갔다. 본지는 포천 YMCA 창립준비위원회 송영섭(70·포천감리교회 원로장로) 위원장을 만나 포천YMCA창립에 대해 들었다. (편집자주)

▶포천 YMCA 창립 배경은

현재 전국 각 시 군 60여 곳에 YMCA가 세워져 시민들을 위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 우리 포천지역도 늦은 감이 있지만 지난 봄부터 기독교 지도자들이 모여 우리도 YMCA를 하나 설립해야겠다는 공감대를 넓혀왔다. 그 결과 120여명이 창립에 뜻을 같이하게 되었다. 그래서 지난 23일 창립 발기인 대회를 치르게 되었다. 이제부터 본격적인 YMCA 활동이 시작 된 것이다.

▶포천 YMCA의 필요성

포천에는 이렇다 할 만한 시민 단체가 없다. 전에 몇 개 있었지만 무슨 사안이 있을 때만 모였고 그 일이 끝나면 활동이 중지되곤 했다. 이제는 시민을 대표 할 만한 영구적인 시민단체가 꼭 필요하다. YMCA가 그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시민단체가 있어야 지역 발전을 위해 시 행정부와 더불어 서로 보완하고 견제 해가며 활기차고 생동감 있는 지역을 만들어 갈 수 있다. 그리고 시민의 권익을 보

호 할 수 있다.

▶YMCA 창립 정신

YMCA는 목적분에 나타나 있듯이 크게 세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역사적 책임의식, 민중의 복지 향상, 그리고 새 문화 창조에 있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 시대에 주어진 역사적인 과제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노력하며 어떻게 하면 시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느냐 그리고 문화적 소양을 높여 가느냐에 있다. 또 어린이로부터 노인들에 이르기까지 사회교육을 통해 지역사회 지도자를 배출시키는 일들을 해왔다.

▶YMCA가 하는 일

우선 지역사회에 꼭 필요한 일들을 찾아내어 도움이 필요한 일들을 우선적으로 해 나가려고 한다. 우선 청소년 문제라든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 그리고 노인들을 위한 사업을 준비 중에 있다. YMCA는 다른 단체와 달리 회원들이 모여 함께 연구하고 협의 해 사업을 만들어 간다. 현재 청소년 위원회, 시민사업위원회, 사회교육위원회, 문화예술위원회, 선교위원회가 조직되어 각 위원회 별로 사업을 준비하고 있다.

▶창립은 언제 하는가.

지금부터 지역사회의 주민들을 위한 사업을 하나 둘씩 해 나가며 조직을 확대 해 가면서 역량을

을 키워 나갈 것이다. 그러다가 힘이 생기면 YMCA 전국 연맹으로부터 창립 인준을 받게 된다. 이 인준식이 창립식이라고 할 수 있다. 그 힘이라는 것은 재정적 자립능력과 민주적 운영의 틀을 갖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미 YMCA 운동은 시작 된 것이다.

▶우리지역은 지역의 특성상 시민단체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물론 처음에는 어려움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한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은 보수적이고, 변화에 둔하고, 군사문화의 뿌리가 깊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나 지역사회 문제에 대한 관심이 참여 의식이 아직 부족하다. YMCA가 앞으로 이러한 난관들을 헤쳐 나가야한다. 시민들의 의식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우리지역의 바로 그러한 문제 때문이라도 YMCA가 꼭 필요한 것이다.

▶운영에 필요한 재정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앞서 말했듯이 YMCA는 지도부 몇몇 사람이 움직여 가는 단체가 아니라 회원 중심의 운동단체이다. 회원들의 회비가 운영의 기본 재정이 된다. 앞으로 3개월 안에 500명 정도의 회원을 확보 해 내려고 한다. 500명 정도의 회원만 있으면 실무자 세 사람이 일 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어떤 일든지 해 낼 수 있을 것이다.



▶YMCA는 기독교단체이기 때문에 참여의 폭이 좁을 텐데

YMCA 창립 정신은 연령이나 성, 그리고 사상이나 이념을 초월 해 지역사회에 대한 애정이 있으면 누구나 회원이 될 수 있다. 이러한 회원규정은 정관에도 명문화되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많은 사람들이 YMCA를 통해 배우고 훈련하고, 작은 일이라도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YMCA는 신나고 재미있고 유익한 곳이다. 그리고 우리를 풍요롭게 한다. 앞으로는 누구나 YMCA 회원이 되고 싶도록 문호를 개방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내도록 할 것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추천! 한마당 이야기

물 마시는법 ... 5가지



이보용

본지 지음위원

1. 공복에 차가운 물을 마셔라. 물은 특히 아침 기상 직후에 마시는 게 좋다. 이때의 물은 10도 이하에 차가운 물이 좋은데, 이렇게 차가운 물을 공복에 드시게 되면 밤새도록 이완되어 있던 위장과 대장의 움직임을 자극해서 변비를 이기는 데 도움을 준다.
2. 식사 중 한 두잔의 물은 소화를 돕는다. 식사 도중엔 물을 일질 마시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행여 물이 위액을 묽게 해서 소화를 방해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 때문인데, 그러나 이것은 1리터 이상의 많은 양의 물을 마실 때다. 한 두잔의 물은 식사 도중이라도 오히려 위장의 연동운동을 촉진시켜서 소화를 도와준다.
3. 커피는 수분의 적, 탈수의 원인. 커피와 같은 카페인 음료도 탈수를 부추긴다. 최근 한 연구에 따르면 하루 6잔 이상의 커피를 마실

경우 전체 수분량의 2.7% 그러니까 70kg의 성인이라면 하루에 1.5리터나 되는 많은 양의 물이 바깥으로 빠져나가게 된다. 습관처럼 커피 마시는 사람이 많은데 앞으로는 커피 대신 물을 많이 마시기 바란다.

4. 술, 담배도 수분의 적, 탈수의 원인. 술과 담배는 수분 흡수를 방해하는 가장 큰 걸림돌이다. 술의 알코올은 소변으로 물을 끌어내서 탈수를 조장하고 담배연기는 호흡기 점막의 수분을 증발시켜 버린다. 그러니까 과음으로 인한 숙취라든지 아니면 담배로 가래나 기침이 심한 분이 있다면 물을 많이 드시기 바란다. 물이야말로 술이나 담배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최선의 보약이다!!

5. 최소 하루 8잔의 물은 대장암, 유방암을 예방. 또, 물을 많이 마시는 여성들의 경우에는 대장암이나 유방암의 발병률이 낮아지고 피부미용에도 좋은 효과를 볼 수 있다고 한다. 최소 하루 1.5리터, 하루 8잔의 물로 건강과 아름다움을 지키는 건 어떨까?

(문의 011-342-5834)

“사랑을 함께 나눠요”

영북면 부녀회, 불우이웃돕기 알뜰시장 열어

영북면새마을부녀회(회장 김명옥)는 11월15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장원회관에서 알뜰시장을 열었다. 부녀회원 16명이 참가한 가운데 문을 연 알뜰시장은 김, 다시마, 신발, 의류, 밀폐용기, 계란, 밀반찬, 건미역등 협찬 받은 물품과 음식을 판매하여 얻은 수익금으로 감장 및 연탄, 쌀등을 구입하여 불우이웃에게 전달하기 위한 것이다.



영북면새마을부녀회는 11월15일 소년소녀가장, 독거노인등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장원회관에서 알뜰시장을 열었다.

이날 김명옥 회장은 “불우이웃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해마다 5년째 부녀회에서 시행하고 있는 정기행사로서 장수를 제공해주신 장원부과 사장님과 행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고 밝혔다.

이날 총 수익금은 약 200만원정도이며 전액 불우이웃돕기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다.

부녀회에서는 이밖에도 꽃밭 가꾸기, 고무마 신어 팔기, 역사축제 5일 봉사, 자선바자회등 봉사활동에 나서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미경 주부명예기자단 영북면지부장 hsd5333@hanmail.net

사랑의 김치 전달식

육군 제1107부대 자매학교 학생들에게 전달

육군 제1107부대(부대장 차덕천)는 간부와 가족이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11월29일 자매학교인 가산초등학교를 방문해 소년·소녀 가장 및 불우학생들에게 전달하고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날 전달된 김치는 400kg로 지난해보다 100kg 많이 담겨 40명의 소년·소녀 가장 및 불우학생들에게 전달했다. 불우학생들에게 전달된 배추는 이 부대 대대장 이하 부대 간부들에 의해 직접 재배한 배추와 뜻깊은 일에 동참하겠다는 군인가족들의 정성이 담긴 것이다. 부대 대대장과 주임원사는 “정성스럽게 재배한 배추로 만든 김치를 우리의 꿈나무인 소년·소녀 가장과 불우학생에게 도움을 줄 수 있

어서 기쁘다”고 밝혔다. 자매학교 김창성 가산초등학교 교장은 “매년 학교의 불우학생을 도와주는 육군 제1107부대를 통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줄 수 있는 큰 계기가 되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하기도 했다. 매년 전하던 김치외에도 쌀 10포대를 전달했는데 여기엔 사연이 있다. 김두열 하사의 사연이다. 김 하사는 지난 10월15일 예정일보다 두 달 빨리 미숙아로 태어난 아기를 정성을 다했지만 병 악화로 품에 제대로 안아보지 못한 채 11월5일 하늘나라로 보내야 했다. 김 하사는 먼저 보낸 아기에 대한 미안함과 위로하는 마음으로 소년·소녀 가장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이번 행사에 쌀 10포대를



포천시 새마을회는 관내 불우노인과 소년소녀가장을 돕기 위한 중구기예단 쇼를 개최해 1천700여명원을 수익금을 모아 70가구에 연탄 800장씩을 전달할 계획이다.

기증해 부대 동료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했다. 이날 전달식을 가진 부대 전간부, 군인가족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매년 이어지는 육군 1107부대의 사랑의 김치 담그기 행사를 통해 소

년·소녀가장과 불우학생들이 점점 추워지는 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내고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하기도 했다. 이은미 주부명예기자단 이사 dldmsal8523@hanmail.net

유원식씨 건설교통부장관 표창

제20회 육운진흥축진대회 화물자동차사업 유공

포천시 소흘읍에서 살고 있는 유원식씨(44)가 11월14일 교통회관에서 개최된 제20회 육운진흥축진대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날 수상한 유씨는 평소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소속으로 연합회 발전에 기여하고 안전운행에 솔선수범하는 등 선진 교통질

서 확립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 받았다. 유씨는 매사에 성실하게 지역의 행사는 물론 주변의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봉사활동에도 나서는 등 타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제20회 육운진흥축진대회에서 건설교통부장관상을 수상하고 부인과 함께 한 유원식씨.



내부인테리어 리모델링 전문업체



좋은 생각이 나거든 망설이지 말고 바꾸세요

벽지, 장판, 페인트, 조명, 버티칼, 샷시, 마루공사, 화장실공사, 베란다 확장공사 등 가격에 자신있기에 무료 출장견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상 호 : 대북 인테리어 하우스
- 대 표 : 유 병 호
- 주 소 : 포천시 선단동 82-14(☎031-542-8818)
- 홈 페이지 : www.daebokart.com
- 장안영업소 : 031-871-2002
- 경기상재 : 031-829-8901
- 방학영업소 : 02-954-1481
- 구리상재(주) : 031-529-5072~3

